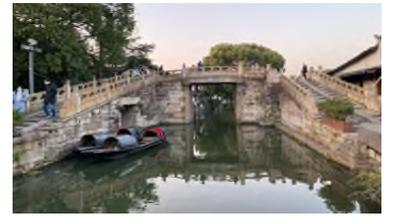


여행지 소개

<p>자싱 (嘉兴)</p>	<p>저장성(浙江省) 북부에 있는 지급시 중국의 베니스라 불리우며, 난후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p> <p>난후(南湖) 자싱시 남쪽에 위치한 저장성 3대 호수 호수 중앙을 마주하고 동쪽,서쪽 호수가 원앙처럼 마주하고 있다고 해서 "위안양후"라고 불리기도 한다. 호수내 명소로 연위러우[烟雨楼], 난후찬[南湖船]가 있다</p> <p>연위러우 [烟雨楼]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조성된 누각이다. 높은 대(臺)와 겹처마, 붉은 기둥, 날아갈 듯 치켜올려진 처마 등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품위 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5대10국 시대 오월(吳越)의) 전원료(錢元璪)가 축조하였다.</p> <p>난후찬 [南湖船] 호심도의 동남쪽 대안에는 1921년 중국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가 이곳 난호에서 열렸는데 이를 기념하는 유람선이 건조되어 정박되어 있다.</p>   
<p>사오싱 (绍兴)</p>	<p>저장성(浙江省) 사오싱(绍兴)현의 현공서 소재지. 춘추전국시대에 월왕(越王) 구천(句踐)에 의해 건설된 월국의 도읍지로 역사가 깊은 도시이다. 시내에 작은 다리가 많기에 수향교도(水鄉橋都)라는 별칭도 있다. 참쌀로 빚은 사오싱주(酒)와 이곳의 평수이차[平水茶]로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p> <p>난정(蘭亭) 여우능, 동호와 더불어 소흥의 3대 풍경구(景观区)의 하나이다. 주요시설로 아지, 난정비정, 곡수류상, 류상정, 난정서법 박물관 등이 있다.</p> <p>대우릉(大禹陵) 대우(大禹)는 원시사회 말기 부락연맹의 우두머리로서 치수사업에 성공, 농업 생산을 발전시킴으로써 요(堯)·순(舜)과 더불어 원시고대의 3대 현군으로 숭앙받는다. 대우릉은 대우를 기려 축조한 능묘로서 우릉(禹陵)·우사(禹祠)·우묘(禹廟)로 이루어져 있다.</p> <p>루신고리 (鲁迅故里) 사오싱[紹興]의 중심지대인 루신중루[鲁迅中路] 두창팡커우[都昌坊口]에 위치한다. 루신기념관 및 소설 속의 장소 함형주점 이외에 루신[鲁迅]의 옛 거주지를 포함한 10여 채의 전형적인 청(淸) 말기의 사오싱[绍兴] 민가 건축물이 남아 있다.</p>   



함형주점

루신의 소설명이자 주인공인 공을기가 술을 마셨던 함형주점이 보존돼있다. 소설의 주인공이 마신 술 소흥주(紹興酒)와 안주 회향두(茴香豆)를 맛볼수 있다.



항조우 (杭州)

중국 7대 고도(古都)중 하나이며, 산과 호수, 탑과 다리가 잘 어우러져 “지상 위의 천국”이라 칭송받는다.

서호

서호는 크게 5개의 호수로 나누어진다. 서호의 규모는 남북 길이 3.3km, 동서 길이 2.8km로서, 자연과 인공이 결합된 정원 문화의 걸작으로 백낙천이나 소동파는 물론이고, 한자성어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주인공인 월왕 구천과 오왕 부차, 중국 4대 미인의 하나인 서시(西施)의 추억이 있는 곳이다. 서호의 빼어난 경치 10경(景)은 다음과 같다.

곡원풍하 (曲院風荷) 남송 시기에 술을 만들던 곳으로 서호 서쪽에 있다. 부근의 늪에 연못이 있어 매년 여름 바람이 되면 온통 술 향, 연꽃 향기가 도처에 가득하여 이 이름을 얻었다.

단교잔설(斷橋殘雪) 백제(白提) 동쪽의 다리로, 겨울에 눈이 쌓이면 먼저 다리의 중앙부부터 녹기 시작하여 지면이 드러나 마치 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소제춘효 (蘇堤春曉) ‘소제’는 서호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제방이다. 북송의 시인인 소동파(蘇東坡)가 항저우 관리를 할 때 20만 명을 동원해 서호에 독을 쌓고 흙은 파내어 6개의 돌다리를 놓았다고 한다. 봄날 이른 아침 이 곳에서 바라본 경치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뇌봉석조(雷峰夕照) 서호 남쪽 영봉산(靈峰山)의 뇌봉탑 너머로 보이는 일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남병만종(南屏晚鐘) 서호 남쪽, 남병산의 정자사(淨慈寺)에 있는 큰 종이 저녁 어스름 무렵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데서 이 이름을 얻었다.

평호추월(平湖秋月) 백제(白提, 백거이가 항저우에서 관리로 있을 때 쌓은 제방)의 서쪽, 고산(孤山) 남쪽 기슭에서 가을날 거울같이 밝은 달이 호수 위에 비쳐 두 개의 달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화항관어(花港觀魚) 서호 독 남쪽에 있다. 화항(花港)이란 이름은 화가산(花家山) 시냇물이 여기를 거쳐 서호로 흘러 들어 가서 생긴 것이고, 송나라 때 한 관료가 이곳에 누각을 짓고 고기를 기르며 풍경을 즐겼다 하여 화항관어라는 이름이 붙었다.

유랑문앵(柳浪聞鶯) 서호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정원이다. 바람결에 버들가지가 흔들리고 꾀꼬리 지저귀는 소리가 아름답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쌍봉삽운(雙峰插雲) 서호의 서남과 서북에 자리 잡고 있는 남고봉과 북고봉을 합쳐서 쌍봉이라고 한다. 두 고봉은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구름이 많을 때, 혹은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는 산봉우리가 꼭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 같은 이름이 생겼다.

삼단인월(三潭印月) 서호 안에 있는 섬으로, 이 섬의 남쪽에 높이 2m의 석탑이 3개 있는데, 달 밝은 밤 호수에 배를 띄우고 불이 켜진 석탑을 바라보면 달이 셋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여 생긴 이름이다. 1위안짜리 지폐 뒷면에 등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영은사(靈隱寺)

서기 326년에 설립된 항저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으로 동진(東晉) 때인 326년 인도의 승려 혜리(慧理)가 페이라이봉[飛來峰]에 와서 '선령이 숨어 있는 곳(仙靈所隱)'이라 하여 사찰을 지어 링인사라 불렀다.

